

교육발전 위한 각종 연구의 結晶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총서' 시리즈 外



한국교육개발원이 출판, 서점에 내놓고 있는 연구성과들.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총서' 전10권을 발행한 데 이어, 지난 4월 '연구논저' 시리즈 전 10권 중 첫책권인 「교육경제와 재정」을 펴내는 등 시판을 위한 출판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것은 1971년 창설 후 교육연구에 주력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판용 출판보다는 '연구보고서'를 주로 발간하던 종전의 형태를 벗어나 점차 기관의 연구성과를 일반인들과도 함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원장 辛世浩)은 교육과정연구부, 교육발전연구부, 교육방송부, 교육자료부, 컴퓨터연구센터 등 5개 부서로 나뉘어 교육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방송교재의 연구 등 교육전반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총서' 전10권은 바로 한국교육개발원 전부서 공동의 연구성과를 책으로 꾸민 시리즈.

85년, 「교육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의 교육재정」 「고등교육의 수월성」 「학교교육과 교육격차」를 시작으로 출판된 '연구총서' 시리즈는 「학교제도」 「한국의 교육과정」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 「한국인의 남녀역할관」 「학습부진아」 「교육과정 국제비교」 등 전10권으로 2년만에 마무리되었다. 여기에는 기획에 착수한 83년 이후 86년까지의 각 부서별 연구결과가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다.

이어 '연구논저'라는 타이틀로 진행되고 있는 시리즈는 연구논총에 계속되는 기획물이다. 내용은 계속되나 체계를 잡기 위해 앞으로 10권 단위로 타이틀을 바꿔 출판할 예정이라고 교육자료부 郭相萬부장은 밝히고 있다.

그 첫책권으로 「교육경제와 재정」을 선보인 '연구논저' 시리즈는 현재 「한국고등교육정책」 「한국교육정책의 이념」 「컴퓨터와 학

교교육」 「영재교육」 등 4권의 원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 이후 「특수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의 전망과 발전방향」 「중학교 교육과정 국제동향」 「교육개혁의 이론과 실제」가 출판될 예정이다. '연구논저' 시리즈는 컴퓨터가 일반화하고 유아교육, 영재교육,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총서' '연구논저' 시리즈는 73년 이래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 제작한 각종 연구보고서, 교수-학습자료, 교육자료 등이 기초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각 연구부서의 성과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에는 각 부서별 출판물도 많다. 한 부서는 또다시 몇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과정부는 교육과정연구, 교과서국제비교, 영재교육, 유아교육 등 세부적인 팀으로 분류되어 맡은 부분의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각 팀의 연구는 정기적으로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된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연구보고서는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새롭게 시판용으로 꾸며지기도 한다.

진로교육팀의 「일과 직업 그리고 미래 과학기술세계를 탐구하는 이야기 모음」, 경제교육연구팀의 「경제교육용 번역도서」, 교과서국제비교팀의 「Teaching about Korea」 등이 대표적인 경우. 이러한 것들은 교사를 비롯한 교육전문가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일반인으로부터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에게 확대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일과 직업 그리고 미래 과학기술 세계를 탐구하는 이야기 모음」은 82년부터 시작한 국민학교 진로교육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해 낸 아동용 읽기자료이다. 「대장장이 형제」 「금으로 만든 손」 「꼬마 컴퓨터 박사」 「하늘에서 만난 친구들」 「풀빛메아리」 등 8권

의 창작동화와 한편의 교사용활용지침서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교육이론연구, 진로교육에 관한 문제점 분석연구를 위한 기초연구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사고력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개발과정을 거쳐 5년만에 완성된 이 진로교육 시

수 있도록 번역, 개발된 것이다. 경제현상 전반에 내재된 기본경제 개념 및 원리를 쉽게 풀이한 이 책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되어 다양하고 흥미있는 경제 참고도서로 개발됨으로써 높아져가는 경제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교육용 번역도서 중 「경제교육 동화집」은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현상과 원리를 동화의 형식을 빌어 알기 쉽게 설명한 책. 화폐의 발생과 기능을 알게 하는 「마즈마섬의 조약돌」, 무역의 발생과 잇점을 설명하는 「무역이야기」,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동을 설명하는 「밀에서 빵까지」 등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안, 각색된 5권의 동화로 꾸며져 있다.

경제교육 참고도서는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 「경제기본개념해설」 「경제교육과 사회와 교육」 「어린이를 위한 경제교육」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 등 4권은 제반 경제현상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 최근 제3세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제3세계의 경제와 사회」가 출판되어 5권이 나와 있는 「경제교양서」는 앞으로도 4권이 더 나올 예정이다. 「경제학입문」 「경제적 사고방식」 「현대자본주의세계의 변화」 「사회주의 세계의 변화」 「제3세계의 경제와 사회」 「현대의 남북문제」 미국과 소련의 국가이념 및 교육이념을 비교, 고찰한 「두 세계의 어린이들」 「경제학용어의 해설」 「경제정책」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연구작업을 통한 출판물은 국내의 학생, 교사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교과서국제비교팀에서는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영어판 자료를 개발하여 출판했다. 「Teaching about Korea」란 이 책은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수록하여 정확한 한국관의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총서·연구논저를 비롯한 진로교육자료·경제교육자료 등은 성숙해 가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외 홍보를 위한 기획물들로 지난 17년간의 연구작업을 기초로 출판된 것들이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창설 취지에도 나타나듯이 한국교육개발원은 각종 교육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왔고 연구보고서를 계속 발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제반 교육관계출판물은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옥경 기자

연구보고서를 주로 간행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총서' '연구논저' 시리즈 등 시판을 위한 출판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5개 부서의 연구성과를 집약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각 팀별로 연구 개발한 내용을 책으로 꾸며냄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즈는 국민학생들이 동화를 통해 진로설계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특히 집필진의 구성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 현직 교사 67명이 집필에 참가했다. 집필 전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집필 이후에는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제작된 색다른 창작동화집이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아개념을 높여주기 위한 「해를 그리는 소년」,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재능이 있음을 강조한 「영어리 도장포」,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린 「불기맞은 임금님」 등 전 8권에 현실적인 얘기를 담은 82편의 창작동화를 수록하고 있는 진로교육 시리즈는 86년도 출판문화상 제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교육 번역자료 개발사업'은 학교 경제교육의 개편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87년에 시작되어 진행중이다. 이는 암기식 내용 서술, 정책홍보적, 생활중심의 용어빈곤 등 종래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경제교육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교육연구팀이 구성되어 개발된 사업.

경제동화집 5권, 경제교육 참고도서 4권, 경제교양서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번역 자료들은 해외자료를 학습보조자료로 사용할